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Young Adults' Information Behavior and Media Use: Focusing on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임 여 주 (Yeojoo L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1 일상에서의 정보 요구의 주제 |
| 2.1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 | 4.2 정보 요구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미디어의 사용 |
| 2.2 이주 배경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 |
| 3. 연구방법 | 5. 결론 및 제언 |
| 3.1 연구대상 | 5.1 결론 |
|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5.2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그들의 일상 정보 행태, 특히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정보요구기록지,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두 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문제 상황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 요구 해결의 양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는 학업, 여가, 외모, 자기개발, 생활, 진로 등이었으며, 특히 학업과 여가에 대한 정보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정보 요구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미디어는 심리적 도피처이자 인식처였고,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였으며, 지식과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답의 책이자 여가 시간의 동반자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미디어 이용 관련 방안들은 추후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ormation behavior and media use of Korean young adult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context. 11 young adults between 13 and 18 with immigration background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provided data via daily logs about information needs, written surveys about media use, and two times of in-depth interviews. The data gathered from these diverse methods were used in analyzing the participants' daily problem situations and attempts to satisfy information needs using media. The information needs of young adult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in their everyday lives included study, leisure, appearance, self-development, living, and career searching - study and leisure were the most needed information subjects. The young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actively using media to solve their information needs. For them, media was an emotional support, a tool to express their own identities, a solution that gives all the answers, and a good companion to spend time with. The proposed strategies about young adults' media use in this study could be used in planning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키워드: 청소년, 미디어 사용, 정보 행태, 정보 요구, 다문화가정 자녀

Young adults, Youth, Media Use,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Needs,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Multicultural Family

*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2013-4640-001-1).

** 한성대학교 박사후국내연수 과정(yeojoolim@gmail.com)

논문접수일자: 2016년 7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55-490,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455]

1. 서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와 탐색, 혼란의 과정을 거치는 시기이다.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 양극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혼란스러운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겪으며 자신만의 역할 정체성, 성적 정체성, 민족 정체성 등을 정립해가게 된다(Erikson 1968; Gross 1987). 이처럼 청소년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기이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비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으며(서진희 2012)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다문화 배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여성가족부 2013; 박진수 외 2015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의 혼돈과 갈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교육부(2014)에 의하면 전체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전체 학생의 1%에 근접하고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만9세에서 24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82,476명으로 2014년에 비해 24%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이에 다문화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송영리 2012; 안인자, 박미영 2011; 이미정, 이미정 2013).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서비스가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요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는 다문화인 2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영미와 조인숙(2011)은 다문화인이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도서관을 덜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부족, 한국어 능력 부족, 도서관 위치에 대한 정보 부재 등이었으며,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한국어 배우기, 친구사귀기, 한국 문화 익히기 등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현황에 집중한 연구는 없었다.

IFLA(2009)에서 펴낸 ‘다문화사회: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서관 이용자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 그들의 정보 요구와 일상 정보 행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처럼 발달 단계상의 과업을 이수해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자아 정체성 확립과 낮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자원과 정보 추구 패턴은 이주배경이 없는 청소년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Koo 2012).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와 함께 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 등에 대한

심각하거나 사소한 질문이 생길 때에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한국인 선주민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일상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함은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박현모, 이지연 2013; Savolainen 1995).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그들의 일상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Abbas(2010)에 의하면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 요구와 그들이 그 정보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포기하는지, 정보를 찾을 때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지 등의 정보 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보 행태 과정에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역할에 대한 연구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정보격차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박진수 외(2015)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정보 활용 영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상 정보 행태에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는

무엇인가?

- 연구 문제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정보요구기록지 작성,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보 이용 행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가 Savolainen의 ELIS(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추구)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Savolainen(1995)은 정보가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 문제 상황, 업무, 사회구조와 기술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ELIS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정보원을 선호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의 역할을 더욱 상세히 알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Savolainen 2005). McKenzie(2003)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ELIS 모델을 제안하며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요인보다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맥락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의 다문

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주민 한국인 부모를 둔 청소년들과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중점을 둔 ELIS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화가정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정보 행태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Agosto and Hughes-Hassell은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를 연구함에 있어 청소년의 발달 단계상 특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겪는 가난과 편견, 롤 모델의 부재 등으로 인해 중산층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자들은 Savolainen의 ELIS 모델을 기반으로 도시 빈민가의 청소년 27명과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단계에서는 설문 조사, 녹음 일지, 정보기록지, 사진일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보 요구와 정보원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 2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을 직접 자료 분석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과 그룹 면담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시각과 정보 요구, 정보 추구의 행태 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 28개의 정보 요구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도시 청소년들의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실증적 모델(empirical model)과 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을 구축하였다(Agosto and Hughes-Hassell 2006a; 2006b).

Fisher et al.은 9세에서 13세 사이의 'tween'(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걸친 연령의 아이들을

일컫는 영어 단어; 본 글에서는 편의상 '어린이'라고 지칭하겠음)' 34명을 대상으로 일상 정보 행태를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Tween Day"라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고 5시간동안 진행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창의적 놀이, 포커스그룹 면담, 개별 면담,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정보 행태를 탐구하였다. "Tween Day"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른 세 장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어린이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즉각적이며 단기적인 목표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직업 선택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정보보다는 새로 나온 비디오 게임에 대한 정보와 같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원했다. 연구가 진행된 세 장소 중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다른 두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과는 다른 정보 요구를 보였는데,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나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에 대처하는 법, 신변안전 등 사회경제적 현실과 연관된 정보 요구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들의 일상 정보 요구와 정보 추구에 있어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 사회적, 정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Fisher et al. 2007; Meyers, Fisher, and Marcoux 2009).

이주 배경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Chu는 미국의 이민자 집단에서 부모보다 먼저 주류사회의 언어를 터득한 청소년이 부모의 통역사 역할을 하며 주류사회와 부모 사이에서 문화, 언어, 정보의 중개를 도맡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Chu는 이 아이들을 ICM(Immigrant Children Mediators; 이민자 어린이 중개자)이라 명명하고 이들의 정

보요구와 정보 중개 행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37명과 멕시코계 미국인 청소년 40명, 총 77명의 청소년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각 면담 대상자의 언어 선호도에 따라 영어, 한국어, 혹은 스페인어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ICM들이 부모나 친척 등을 대신하여 얻고자하는 정보는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집수리에 대한 정보, 여가/유흥/여행에 대한 정보 등이었다. ICM들이 주로 하는 정보 중개 행태에는 동시통역, 서류 작성, 가족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이동하기, 번역, 정보 얻어오기, 편지쓰기, 부모를 위한 (공공)서비스 획득 등이었다(Chu 1999).

Dresang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 행태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Dresang(1999)의 급진적 변화 이론(Radical Change Theory)은 디지털 시대의 어린이문학에 나타난 변화를 연결성(connectivity), 쌍방향 참가(interactivity), 접근성(access)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용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보 행태 연구에서 어린이들은 하나의 컴퓨터를 다른 친구와 함께 이용하고 싶어 하고 찾아낸 정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급진적 변화 이론의 연결성 측면을 확인시켜주었다(Dresang 2005). Koh(2011)는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급진적 변화 이론이 여전히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정보 행태와 그들이 이용하는 정보의 특징을 설명하

는 견고한 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2.2 이주 배경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옥스퍼드 사전(2016)에 의하면 미디어란 방송, 출판, 인터넷 등의 매체를 뜻한다. 이상우와 배선영(2011)은 “‘미디어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 ‘이러이러한 것들이 미디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이 시점에도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청소년 이용자들은 이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통하고 협동하며 창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탐험은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Alvermann 2008; Moje et al. 2008).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패턴을 놀라운 속도로 바꾸어놓고 있다. 닐슨(Nielsen)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의 PC 이용 시간은 4%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20% 증가했으며(Nielsen 2012)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Mihailidis 2014).

Koltay(2011)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엔터테인먼트와 대중문화의 메시지가 또래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투자하는 시간과 미디어의 종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터넷은 다른 도구들보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신체적 약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익

명의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보고 감정의 교류를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olloway and Valentine 2002; Suler 2002; Valkenburg et al. 2005). 이 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문화적, 언어적 배경으로 인해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안정된 민족적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2세대 이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Haenens(2003)는 미디어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체성의 유형과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민족적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낸 청소년들은 모국(혹은 부모님의 나라) 소식에 대한 정보 요구 수준이 높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권 출신 청소년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난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Rydin and Sjöberg(2008)의 연구에서도 난민 2세 어린이들 중 자신의 민족 집단과 친밀감을 느끼는 어린이일수록 그 민족 집단 내의 온라인 채팅 그룹에서 활발히 활동함을 볼 수 있었다. Elias and Lemish(2009)는 구소련(전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민자 청소년 70명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민자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인 언어적 다양성, 접근성, 쌍방향적 소통 방식, 익명성 등으로 인해 이민자 청소년들은 개인의 성장과 강화에 필요한 문화적, 사회적, 정서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정

보는 또한 발달단계상 민감한 시기에 사회적 약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이민자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경(2011)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14세부터 24세까지의 북한이탈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은 사회적지지체계로서 가족, 교사,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많을수록 학습관련 정보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정보형 인터넷 활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교사,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적을수록 컴퓨터 게임이나 성인용 웹사이트 검색 등 오락형 인터넷 활용을 추구하였다. 온라인 채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의 관계형 인터넷 활용은 친구와의 유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가족 및 교사와의 유대관계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수 외(2015)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정보격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게임이나 SNS 등 소비에 목적을 둔 정보 활용에서보다 연습과 복습 등 생산적 목적을 지닌 정보 활용에서 비다문화가정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를 알아보고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보 요구를 해결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보요구기록지,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두 차례에 걸친 심층면담 등 다양한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문제 상황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 요구 해결 양상을 더욱 풍성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3.1 연구대상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로 통칭되는 청소년 집단은 사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현옥 외(2012)는 공간적 차원과 이주 경험을 기준으로 이들을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북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말로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적 정의의 다문화가족 자녀, 즉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만이 아닌 현재 대다수 한국인에게 ‘다문화 자녀’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 행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내의 ‘다문화’라는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이주배경을 가진 연구 참가자의 모집을 위해 본 연구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그 중에서 최대편차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과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Patton(1990)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례를 통한 심도 있

는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최대편차표집은 한 집단 내에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다(Glesne 1999). 본 연구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공부방B의 청소년들이 적절한 표집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다문화공부방B에서 3년째 자원봉사 교사로 일해 오며 청소년들과 충분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구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답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편의표집 방법으로 다문화공부방B의 청소년들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11명이다. 이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이주민지원센터A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공부방B에 다니는 청소년들이며 각기 다른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표 1〉 참고).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6명(나래, 성민, 유나, 준수, 지애, 희철)은 한국에서 나고 자라났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다. 다정, 민호, 바비는 한국에서 태어나 각각 5세, 7세, 1세에 한국을 떠나 어린 시절을 필리핀에서 보낸 후 각각 5년 전, 2년 전, 2개월 전에 귀국한 경우이다. 다정은 한국어가 능통한 상태이며 민호는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기는 하나 아직 한국어보다는 파갈로그어와 영어가 더 유창하다. 바비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나 파갈로그어와 영어가

〈표 1〉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정보

이름(가명)	나이	성별	어머니의 출신국가	아버지의 출신국가	기타
나래	13	여	예멘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바비	13	남	필리핀	한국	2개월 전 중도입국
다정	13	여	필리핀	한국	5년 전 중도입국
민호	14	남	필리핀	파키스탄	2년 전 중도입국
성민	14	남	필리핀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유나	14	여	중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준수	15	남	태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지애	17	여	태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라샤	17	여	예멘	예멘	2년 전 난민신청 후 인도적 체류 중
희철	17	남	중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 자람
가윤	18	여	중국	한국	4년 전 중도입국

유창하다. 가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다 9세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 일부를 보내고 4년 전 한국에 재입국한 경우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유창하다. 라샤는 예멘인으로, 예멘 내전 직후 온 가족이 예멘에서 탈출해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였고, 2년 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샤는 아랍어가 모국어이나 한국어와 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자(귀화자 포함)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문화’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자녀와 난민 자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 ‘새로운 곳에 정착한 학령기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추세이다(신현옥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라샤를 다문화가정 자녀로 포함하도록 한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4단계에 걸쳐 수집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먼저 1주일에 걸쳐 정보요구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작성된 정보요구기록지를 바탕으로 각 참가자들과 일대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어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두 번째 일대일 심층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다각화(triangulation)의 한 형태이며, 다각화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Lincoln and Guba 1985). Webb et al.(1966)은 어떤 진술이 두 가지 이상의 측정방식에 의해 확인될 경우 그 해석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비록 쉬운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을 다각화하는 것이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3.2.1 정보요구기록지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1주일동안 매일 정보요구기록지를 작성하였다. 정보요구기록지는 그 날 자신에게 생겨난 궁금증, 즉 필요로 했던 정보의 주제와 그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보았는지를 적는 기록 일지이다. 정보 요구의 주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거나, 문제라고 느껴지거나, 무슨 걱정이 생겼거나,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경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박현모, 이지연 2013)에서 궁금했던 질문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정보요구기록지의 작성은 2016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주일간 수행되었다(민호의 경우는 예외로, 2016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수행되었다 - 다음 단락에 자세한 설명이 이어짐). 1주일이라는 기간은 연구 참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Journal-based data collection)할 때 가장 이상적인 기간이다(Zimmerman and Wieder 1977). 기록지 작성 기간이 1주일보다 더 길 경우 참가자들의 연구 참여 의사가 줄어들게 되고, 1주일보다 짧을 경우는 참가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자료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Agosto and Hughes-Hassell 2005).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매일 최소 한 개 이상의 정보요구의 주제와 정보 탐색의 출처를 기록하도록 안내받았다. 참가자들은 최소 7개(하루 평균 1개)에서 최대 31개(하루 평균 4.4개)의 기록을 제출했다. 종합하면 참가자들은 평균 11개(하루 평균 1.6개)의 정보 요구의 주제와 정보 탐색의 출처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성실하게 정보요구기록

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민호(14)는 처음에 궁금한 것이 전혀 없다며 백지를 제출하였다. 사춘기를 다소 심하게 겪고 있는 민호가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연구자가 매일 같은 시간 민호에게 직접 페이스북 메신저로 물어보는 방법을 제안했고 민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민호의 정보요구기록지는 이렇게 메신저를 통한 연구자와의 소통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연구에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었을 민호의 정보요구주제를 수집하고 이어진 연구 절차를 진행한 것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에 대한 분석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나, 다른 참가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저하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Campbell and Stanley 1963).

참가자들이 기록한 정보 요구의 주제는 ‘중학교에 가면 교복 입나?’와 같은 간단한 질문에 서부터 ‘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을까?’와 같은 철학적 질문에까지 그 범위가 넓었다. 비슷한 질문이 여러 번 기록되기도 했는데, 비슷한 내용을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질문을 유효한 개별 질문으로 간주하였다.

3.2.2 1차 심층 면담

첫 번째 인터뷰는 각 연구 참가자의 정보요구기록지에 바탕을 둔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은 질문지나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파편화된

경험을 총체적인 것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Graham 1984).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연구 참가자와 면담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을 성인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준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Roberts 2008). 연구자는 2016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각 연구 참가자와 1회씩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면담의 진행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반으로, 평균 진행 시간은 1시간 5분이었다. 연구 진행 장소는 이주민지원센터 A의 교실 혹은 연구 참가자의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카페였다.

연구자는 각 연구 참가자가 기록한 정보요구 주제와 정보 해결 방법에 대하여 연구 참가자에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였고, 연구 참가자가 제시한 대답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이어감으로써 각 정보요구 주제의 맥락과 정보 해결 시도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Westcott and Littleton(2010)은 어린이나 청소년과 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자는 단답형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면담 대상자와 함께 의미 있는 맥락을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나 청소년 면담 대상자는 자기가 한 대답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연구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더 확실히 구축해나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맥락에 초점을 맞춘 반복되는 대화 방법은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가자의 본뜻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춤 잘 추는 법'이라는 정보요구를 적어낸 라샤(17)의 경우, 연구자는 처음에 단순히 라샤가 춤추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라

고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맥락을 중심으로 한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친 후, 라샤가 춤 잘 추는 법을 알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유튜브 스타가 되어 유명해진 후 예멘의 처참한 현실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가자가 기록한 정보 요구 주제를 연구자와 함께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어보며 그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확인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확인(member check)' 절차의 한 방식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가자는 자신의 발언이나 기록이 연구자에 의하여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1차 연구절차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요구기록지의 작성 단계- 미처 언급하지 못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다. 연구 참여자의 확인 절차는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Creswell 2003; Lincoln and Guba 1985).

3.2.3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지와 2차 심층 면담

미디어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상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면담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하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설문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동기를 사회적 상호작용, 기분 전환, 정보 획득, 오락 추구, 자기 관리로 나누어 측정한 설진아(2010)의 설문

문항과 Elias and Lemish(2009)가 이민자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면담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참고한 두 논문에서 '인터넷'이라고 명명한 개념을 '미디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버 밴드 등)', '게임(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등)' 등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1) 미디어 사용 패턴, (2) 미디어 사용 동기, (3)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의 정도, (4) 미디어 사용이 자신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5) 한국 사회와 부모님의 민족 집단에 대한 소속감 등의 주제를 담아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자가 동석하여 연구 참가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도중 질문이 생길 때 즉시 연구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2차 심층 면담은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주민지원센터A의 교실 혹은 연구 참가자의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진행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40분으로, 평균 진행 시간은 1시간 15분이었다.

대부분의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라사(17)와의 면담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사용되었으며 간혹 인터넷 사전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바비(13)와의 면담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와 정보요구기록지 또한 영어로 작성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transcribe)되었다. 기록된 면담 스크립트들은 의미 단위로

나뉘어 1차로 기술적인 코드(descriptive code)로 코딩되었고, 2차로 정보요구기록지를 포함하여 축 코딩(axial coding) 방법으로 재구성되었다. 기술적인 코딩은 스크립트의 각 문장 혹은 단락을 주제별로 단어나 짧은 구절로 요약하여 코딩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축 코딩은 기술적인 코딩과 같은 1차 코딩에서 나온 주제의 조각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상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등으로 재구성하고 각 카테고리 사이의 연결 관계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Saldana 2009). 실제 본 연구에서 실행한 코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차 기술적인 코딩 단계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좋은 노래가 있다 하면 끝까지 다 들어보고 해요." (성민, 14)라는 면담 내용을 '유튜브로 음악 듣기'라는 구절로 코딩하였고, "(유튜브에) 심심해서 들어갔더니 계속 검색만 하다가 시간 보니까 세 네 시간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앉아서 뭐 검색할 거 없나 계속 생각하다가 몇 번 찾고 나서 그냥 시간 보면요, 바로 시간이 가 있어요." (성민, 14)라는 면담 내용은 '유튜브 하면서 시간 보내기'라는 구절로 코딩하였다. 2차 축 코딩 단계에서는 '유튜브로 음악 듣기' 코드와 '유튜브 하면서 시간 보내기' 코드를 하나로 합쳐 '여가시간에 유튜브 하기'라는 포괄적인 코드로 묶었고, 이는 '여가시간에 컴퓨터 게임', '여가시간에 TV 시청' 등의 다른 코드들과 함께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상위 카테고리 안에 배치되었다.

축 코딩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점(saturation point)을 발견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11명의 정보요구기록지와 심층 면담 스크립트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요구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업과 여가에 대한 높은 정보요구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령과 이주배경에 따라 세부 집단 별로 특정 정보요구주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주배경에 따라 미디어 이용 행태에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이 포화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참가자의 모집을 중단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어른’인 연구자의 역할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어른은 어린이나 청소년보다 권력구조상 상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의 말에 쉽게 위축되거나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Christensen 2004; Fine and Sandstrom 1988). Christensen(2004)은 어린이와 청소년만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어른”의 입장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연구 진행 시점까지 약 3년째 다문화공부방B에서 주말마다 자원봉사 교사로 일해오고 있었다. 다문화공부방B의 청소년들은 연구자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평상시 연구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자와 참가자들 간의 유대는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정보요구기록지에 자신의 솔직한 궁금증을 가감 없이 기록할 수 있는 안전함을 제공해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또한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카카오톡 계정, 카카오톡 메신저와 페이스북 메신저의 내용 등을 자발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등 본 연구를 질적으로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이와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보요구기록지가 연구 참가자의 정보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 중 대다수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궁금했던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기록했다고 대답했다. 하루 동안의 정보 요구 중 기록 당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정보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자연관찰법(naturalistic observation)을 통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가자의 말과 행동을 세세히 관찰했다면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 요구 주제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 중 특정 참가자의 정보행태가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 참가자가 기록지를 통하여 제출한 정보 요구 주제는 최소 7개에서 최대 31개로, 한 참가자의 의견이 다른 참가자의 의견보다 최대 4배 정도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층 면담에서도 내향적인 참가자보다 외향적인 참가자의 정보행태 사례가 더 많이 수집된 경향이 있다. 실제로 바비(13)는 1차 심층 면담 당시 초반 20분 정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쑥스러워하

며 모든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였다.

셋째, 본 연구 참가자의 정보 행태가 한국의 모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행태를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다. 비록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이주배경이 비교적 다양하기는 하나,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특정 지역들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한국 문화에의 적응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다문화공부방B에 다니고 있으며 매주 공부방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의 능동적인 성격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공부방 교사들에게서 받는 심리적인 응원과 지지도 이들의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 행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11명 중 10명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중등학교 93.5%, 고등학교 89.9%로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약

10%가 학교 밖 아이들이다(여성가족부 2015). 학교 밖에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문화 공부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한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정보 행태를 보다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연구 결과

4.1 일상에서의 정보 요구의 주제

정보요구기록지에 기재된 일상에서의 정보 요구들은 총 1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가장 높은 정보 요구를 보인 주제는 학업이었으며, 여가 주제가 그 뒤를 이었다(〈표 2〉 참고). 본

〈표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요구의 주제

순위	주제	예시	빈도
1	학업	3차항의 인수정리 해법	23
2	여가	요즘 어떤 게임이 인기있는지	17
3	외모	아이라이너 잘 그리는 법	13
4	자기개발	소설의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12
5	생활	돈을 아껴 쓰는 법	9
6	진로	건축가의 연봉	8
7	이성 관계	연애를 잘 하는 방법	8
8	상급학교	중학교에서는 교복 입나?	7
9	학업 외 지식	What is 소금?	7
10	친구 관계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법	5
11	사회규범	교권 침해와 청소년법	4
12	사회적 이슈	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을까?	3
13	건강	아토피 피부 관리하는 법	3
14	학업 외 학교활동	졸업사진 포즈를 뭘로 하지?	1
15	SNS 활동	왜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지? 나는 거의 없는데	1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보고한 정보 요구의 주제들은 이연옥(2007), 박현모와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정보 요구의 주제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보고한 정보 요구는 한국에서 자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상적 고민과 그들의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4.1.1 학업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정보 요구를 보인 주제는 학업이었다. 학업정보에 대한 요구의 빈도수는 23으로 다른 주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 중 가운(18)을 제외한 모두는 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는데 정보요구기록지 작성 당시 학교에서 내준 숙제나 수행평가 과제, 복습과 중간고사 준비 등을 하며 궁금해진 지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복습과 중간고사 준비 등에서 나타나는 학업에 대한 정보 요구의 예로는 ‘관계부사(영어)’, ‘3차항의 인수정리 해법(수학)’,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법(자유탐구)’ 등이었다.

가운(18)은 중국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온 경우인데 중국에서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에서 다시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공립학교 과정을 포기하고 하루에 2시간씩 수업을 듣는 학원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른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검정고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낸 학업에 대한 정보 요구 주제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검정고시 학원에 대한 가운(18)의 정보 요구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요구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준수(15)는 “제가 영어 듣기는 되는데 작문이 안돼요. 작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질문했다. 준수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학교 2학년이 되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정(13)은 ‘노트 필기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요구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중학생 되기 전에 5, 6학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는 디딤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그냥 놀기만 하면 다른 애들보다는 좀 뒤랄까, 기초 개념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알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4.1.2 여가

여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정보 요구를 보인 정보 요구 주제였다.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청소년 중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단 3명뿐이었다. 나래(13)는 방과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했고, 성민(14)은 방과 후 바로 학원에 갔다가 저녁 9시에 귀가했다. 가운(18)은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했다. 나래, 성민, 가운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청소년은 대부분 오후 3-4시 경부터 잠자리에 드는 자정 전후의 시각까지 온전히 자유 시간을 갖

게 되는 셈이었다. 이렇게 여가 시간이 많은 상황은 여가에 대한 높은 정보 요구로 이어졌다. ‘심심한데 뭐 하지?’, ‘요즘 어떤 게임이 인기 있지?’, ‘요즘 재미있는 영상은 뭐가 있지?’는 여러 명에게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정보 요구였다.

여가에 대한 정보 요구는 미디어와 연관된 것이 많았다. 특히 남자 아이들은 ‘2016년 최고의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은?’, ‘롤 멀티 실버 되기(‘롤 멀티의 신’이라는 게임에서 실버 레벨까지 올라가는 방법)’, ‘게임 공략법’ 등의 정보 요구를 제시하며 게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시간이탈자(좋아하는 영화)의 상영 날짜’, ‘방탄소년단(좋아하는 연예인) 스케줄’, ‘요즘 인기 있는 노래’ 등 대중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정보 요구들도 있었다.

4.1.3 외모

외모에 대한 정보 요구는 13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에게서만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12세에서 16세 사이에 겪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를 말하며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의 외모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춘기를 관통하고 있는 나이인 13세, 14세 청소년에게서 외모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복근 만드는 법’, ‘키 잘 크는 스트레칭’, ‘머리 기르는 법’ 등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 필요한 정보 요구를 보였다.

외모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 요구를 보인 나래(13)는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닌 아이였다. 예멘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

이에서 태어난 나래는 예멘인 어머니의 외모를 많이 닮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외국인으로 오해받으며 지내왔다고 했다. 현재도 친구가 거의 없는 나래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가장 큰 원인이 자신의 외모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지난겨울 이주민지원센터A에서 주최한 캠프에 참가했을 때 이란 영화 <천국의 아이들>을 감상했고 그때 영화의 여자주인공과 자신이 닮았다는 ‘칭찬’을 들은 후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다. 나래는 ‘얼굴에 트러블이 안 생기게 하는 법’, ‘앞머리 예쁘게 드라이하는 법’, ‘틴트의 종류는 무엇?’ 등 자신의 외모를 더욱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

4.1.4 자기 개발

자기 개발에 관련한 정보 요구는 17세 이상의 청소년에게서 비교적 많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함과 동시에 현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을 탐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며, 자기 개발을 통하여 자신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정보 요구의 내용은 ‘일찍 일어나는 법’에서부터 ‘연극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다양했다.

특히 지애(17)는 하고 싶은 것이 무척 많은 아이였는데, 장래희망이 프로파일러(profiler: 범죄심리분석관)였으며 추리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 습작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연극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었다. 지애는 ‘소설의 첫 문장 쓰는 방법’, ‘역할에 대한 감정표현 방법’, ‘해부학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닦고자 하였다.

4.1.5 생활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5명은 부모의 돌봄이 비교적 적은 아이들이었다. 부모가 밤늦게 퇴근하여 본인 스스로 저녁식사를 챙겨야 하거나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은 '오늘 무슨 요리 하지?', '간단하게 해먹기 좋은 요리', '돈을 아껴 쓰는 법'과 같이 실생활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4.1.6 진로

진로에 대한 정보 요구는 일부 청소년에게서 집중적으로 제시되었다. '건축가의 연봉', '식물학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상당사가 되려면?', '경찰대 커트라인은?' 등의 정보 요구가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정보 요구를 보인 청소년은 4명이었는데, 궁교롭게도 이들은 불안정한 가정 상황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니고 본인의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또한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돈이라는 것을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청소년 시기가 "장래의 직업이나 상위 교육 기관 진학에 대한 의사 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박현모, 이지연 2013)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정보 요구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현실감과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 또

한 진로에 대한 정보 요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7 이성 관계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 역시 이성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성과의 관계를 시작, 발전, 혹은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성민(14)은 학원에서 만난 여자가 마음에 들어 '연애를 잘 하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고 한다 - 실제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최근에 여자 친구와 헤어진 민호(14)는 자신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최근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나래(13)는 '남자친구 사귀는 법', '○○ 오빠의 이상형은?' 등의 정보 요구를 보였다.

4.1.8 상급학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2명은 상급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이들은 중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정보 요구를 드러내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보는지', '중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지', '교복은 비싼지' 등이 이들이 상급학교에 대해 궁금해 한 점들이었다. 상급학교에 대한 정보 요구를 보인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평소에 자주 드러낸 이들로, 중학교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4.1.9 학업 외 지식

학업 외 지식에 대한 정보 요구는 가장 최근에 중도 입국한 바비(13)에게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바비는 필리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다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개월 전 중도 입국했다. 바비는 학교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가정통신문 등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다. 'What is 소금?', 'What is 제주도?', 'What is 일기장?' 등이 바비가 나타난 정보 요구였다. 바비는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TV 시청하는 데에 소비하는데, 주로 영어로 방송하는 채널(BBC,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을 본다고 했다. 바비는 자연이나 과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나오는 새로운 개념 - 예) dark matter(암흑물질) - 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어 했다.

4.1.10 친구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나(14)와 나래(13)는 친구 관계에 대한 정보 요구를 드러냈다. 이들은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으나 친해지는 방법을 잘 몰라 힘들어했다. '친구 많아지는 법은?', '친구들의 성격을 잘 모르겠다',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등이 이들이 나타난 친구 관계에 대한 정보 요구였다.

4.1.11 사회규범

민호(13)는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필리핀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민호는 한국에 온 후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영어와 체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

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존감이 저하되었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까지 이르렀다. 지애(17)는 '청소년법과 교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했다. 지애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교사와 수업 방해 등을 통해 교사의 권위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학생들을 보며 법으로 보장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고 했다. 그 외 '비뚤어진 어른들의 심리', '말 잘 듣는 법'과 같이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정보 요구도 있었다.

4.1.12 사회적 이슈

가운(18)은 '왜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연구에 참가할 당시 인터넷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동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정(13) 역시 인터넷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보면서 분노했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라샤(17)의 정보 요구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라샤는 '예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범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다. 면담 당시 라샤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일어난 여성혐오범죄와 전쟁의 참상을 연구자에게 상세히 이야기해주었는데, 예멘을 떠난 지 2년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4.1.13 건강, 학업 외 학교활동, SNS 활동

그 외 '아토피 피부 관리하는 법', '사람이 열이 나는 이유' 등 건강에 관련한 정보 요구와

‘졸업사진 포즈를 뭘로 하지?’와 같은 학업 외 학교활동에 관련한 정보 요구, ‘왜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지? 나는 거의 없는데’와 같이 SNS활동에 관련한 정보 요구가 있었다. SNS 활동에 관련한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더욱 상세히 분석이 이어질 것이다.

4.2 정보 요구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미디어의 사용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중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5시간 47분이었고 주말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49분이었으며, 주로 온라인 채팅과 동영상 시청, 정보 검색, 게임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교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취침시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진아(2010)는 한국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요 동기는 정보획득과 오락추구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역시 정보획득과 오락추구를 위한 미디어 사용 행태를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심리적 탈출구로서, 자기표현과 자기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동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

4.2.1 심리적 탈출구로서의 미디어 이용

지애(17)의 정보 요구 중 하나는 “비뚤어진 어른들의 심리”에 대해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려달라는 질문에 지애는 “왜 사람들은 참고만 살다가 술을

먹으면 그 참은 게 폭발되며, 왜 폭력적으로만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고, 왜 도대체 자녀 훈육을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써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긴 하죠.”라며 속사포처럼 분노 섞인 말을 쏟아냈다. 지애의 부모님은 알코올 관련 문제를 겪고 있었고 가정 내에서 폭력이 수시로 행해지고 있었다. 지애의 어머니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였고 지애는 욕설을 포함한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태국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제한된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지애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 한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겪는 것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기 위한 도구로 지애는 ‘멤놀(멤버놀이)’를 선택했다.

‘멤놀’은 ‘멤버놀이’의 줄임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가장해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서 글을 쓰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극을 뜻한다.”(구희연 2011).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커뮤니티가 1,000여개 검색되고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회원이 87,000여명에 달할 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종의 역할극이다(손현성 2014).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마치 자신이 그 연예인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말투와 특징을 따라하는 것이다. 1년 넘게 카카오톡스토리 멤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애는 “말이 멤버놀이이지 그냥 얘기하고 떠들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애는 다문화공부방B에서 알게 된 친구(가명: 승인)의 소개로 멤놀을 시작했다고 했다. 지애는 학교 친구들과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멤놀방에서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승인도 다문화고 저도 다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느끼는 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다 이러면은 ‘어,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 막 ‘아, 엄마가 나한테만 설거지 시켜.’ 이런 거 진짜 공감되잖아요. ‘어, 인정인정인정, 나도 그랬어.’ 막 이러면서.”(지애, 17)

지애는 자신과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기본적으로 멤놀방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방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애가 다문화가정 자녀인 것을 개의치 않아했다. 지애는 멤놀에서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일부러 숨기지 않아도 되었고,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경험하는 고충을 마음껏 털어낼 수 있었다. 멤놀 멤버들은 지애가 아플 때 “병원에 가봐.”라던가 “약은 먹었어? 좀 쉬지.” 등의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었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지애가 엄마에게 받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이렇게 지애는 자신의 심리적 도피처이자 안식처로써 멤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주장한 학자들이 많다. 인터넷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봄으로써 현실에서 억제되어있는 자아의 다양한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Donath 1999; Suler 2002).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과 시각적, 청각적 단서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이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Holloway and Valentine 2002; Valkenburg et al. 2005). 멤놀의 특징 중 하나

인 자유로운 성별 설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역할 시도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멤놀에서 ‘여코’는 ‘여자 코스프레’, ‘남코’는 ‘남자 코스프레’의 줄임말로, 남자가 여자 연예인인 척 하는 것은 여코, 여자가 남자 연예인인 척 하는 것은 남코라고 한다. 지애는 남코를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애는 실제의 자신도 남자라고 속이고 있었다. 멤놀방의 멤버들은 친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실제의 자기 모습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애는 남동생의 복근 사진을 올리거나 남동생의 교복을 빌려 입을 사진을 올리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남자로 포장하였다. 승인은 모르는 척 해주었고 멤놀방의 다른 멤버들은 지애를 ‘오빠’라고 불렀다. 멤놀방에 있던 다른 멤버들이 정말로 지애를 남자로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애가 자신 안에 있는 남성적인 자아를 실험해보았다는 것이다. 지애는 평소 남성적인 옷차림을 즐겨 입었다. 또, “친구들이 저보고 잘생겼대요.” 혹은 “저 목소리 남자 같아요?”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다. 청소년기는 긍정적, 부정적 자기평가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완성해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정립해야 하는 주요 정체성에는 성적 정체성 또한 포함되어 있다(Erikson 1968; Gross 1987). 멤놀을 통해 지애는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연습해보며 자신만의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4.2.2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

민호(14)와 라샤(17)는 유튜브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만든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유튜버(Youtuber)였다. 이들은 연

구자에게 자신의 계정을 구독해달라는 말을 하며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2년 전 중도 입국한 민호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러 집에서 거리가 먼 초등학교로 전학신청을 했다. 그곳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와 귀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와 집의 거리가 먼 이유로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친구들과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 본래 성격이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던 민호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타 연주와 게임, 동영상 시청에서 위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유튜브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 업로드한 동영상은 자신의 방 안에서 자신이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후 업로드한 동영상에서는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게 되었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서 게임 방송도 만들기 시작했다. 민호는 영어, 한국어, 파갈로 그어로 만들어진 유튜브 동영상들을 포괄적으로 구독하며 전세계의 최신 유튜브 동영상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구독자수도 조금씩이나마 증가하였다. 민호는 자신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이유가 “유명해지고 싶어서”라고 했다. 민호는 스스로 만든 동영상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라샤(17) 역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 계정을 운영한다고 했다. 라샤가 유명해지

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모국인 예멘을 돕고 싶기 때문이었다. 라샤는 정보요구기록지에서 ‘예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범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요구를 보고했었는데, 유튜브 계정 운영은 바로 이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다. 라샤는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똑똑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면담 당시 라샤는 이슬람권에서 횡행하는 조혼, 구타, 명예살인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들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라샤는 한국인인 연구자가 그 현실을 알아주기를 바랐고 예멘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랐다. 라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Musical.ly’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영상을 촬영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하고 있다. 라샤는 Musical.ly 동영상을 통해 유튜브 스타가 된 미국인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Vallentine and Holloway(2002)는 인터넷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도구라고 했다. 인터넷은 거주지나 신체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민호와 라샤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을 잘 파악하였고 자신이 만든 영상을 이용해 자신이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하고 있었다.

4.2.3 지식 정보에의 요구 해결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학원에 다니거나 성격이 활발한 일부 청소년은 학업, 자기개발, 상급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학교 교사, 학원 교사, 공부방 교사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외 다수의 청소년은 그저 인터넷에서 그 정보 요구에 대한 해답을 검색해보는 방법을 택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학교 과제를 수행할 때 역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된 자료를 훑어보는 방식을 선호했다.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올 때에도 네이버를 이용하였다. 희철(17)은 '3차항의 인수분해'가 이해되지 않아 그 구절을 그대로 네이버에 입력을 했고 원하는 풀이법을 찾아냈다고 했다. 유나(14)는 곱셈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유튜브에 '35 곱하기 60'과 같은 문장을 입력했고 원하는 정답을 찾았다고 했다. 유나는 "이렇게 치면 대부분 그냥 (정답을) 알려주거나 풀이과정 비슷하게 해서 그거 하는 (설명을 올려주는) 사람들 많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어떻게든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학업 외 지식, 매일의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 지식, 진로에 대한 정보 등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습득하였다. 준수(14)는 원래 꿈이 컴퓨터 게임 개발자였는데 어느 날 학교 기술과학 시간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로 건물에 흥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 후 네이버에 들어가 '건축가 연봉'이라는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했는데 '지식IN' 카테고리에서 건축설계사 연봉이 4천만원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정보를 습득한 후 준수는 건축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꿈이 더 확실해졌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지식IN' 카테고리

에 있는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이미 던졌고 '지식IN'에 답을 올려놓은 사람은 자신과 질문자를 포함한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희철(17)은 이전의 정보 검색 경험에 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정답을 갖고 있는 카테고리는 백과사전이나 블로그, 뉴스 등이 아니라 '지식IN'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식IN'을 먼저 찾게 된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습득을 위해서도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였다. 미래에 유튜브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가운(18)은 한국 우타이테 양성 프로젝트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카페 회원들과 함께 서로의 노래를 평가하고 믹싱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힙합과 랩(Rap)에 관심이 많은 성민(14)은 유튜브를 통해서 현직 한국 래퍼들이 하는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비트박스가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저는 8비트까지 해서(할 줄 알아서), (이제) 16비트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강의를 들어요."(성민, 14)

4.2.4 여가시간의 활용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부분은 방과 후부터 취침 전까지의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어에 소비했다 - 평균 주중 5시간 47분, 주말 7시간 49분. 김지혜와 정익중(2010)은 청소년기에 부모의 지지와 관여, 통제가 적은 청

소년일수록 오락형의 인터넷 활용 방식을 추구하며 부모의 지지와 관여, 통제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정보형의 인터넷 활용 방식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살펴볼 때 이들은 오락형에 가까운 인터넷 활용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의 미디어 사용은 각자 나름대로의 패턴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TV 시청,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에 할애하는 시간의 양이 매우 많았다. 준수(15)와 지애(17)는 매일 스마트폰게임을 3시간, TV 시청을 2시간 한다고 했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 외의 시간은 웹툰과 유튜브 동영상 - BJ 방송과 일본 애니메이션 등 - 을 감상하는 데에 쓴다고 했다. 준수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 컴퓨터로 게임만 하던 초등학생 때보다는 지금 미디어 사용시간이 훨씬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부하는 데에 소비하는 시간은 지애의 경우 저녁식사 전 30분, 준수는 학교를 나서면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동영상 찾아보다 보면, ‘보이는라디오’ 보면 거의 1시간이니까 보이는 라디오 보면 1시간, 뮤직비디오 한 3개 보면은 9분. 그냥 주르다 보는 것 같아요, 잠들기 전까지. 밥 먹으면서 ‘블리치’ 보다가 이제 11시에 누워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탄소년단 동영상 보다가 자는 거예요, 그럼 거의 2시간 정도 보다가 자요.”(지애, 17)

성민(14)은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 중 유일하게 학원에서 비교적 긴 시간을 보내는 아

이였는데, 학원과 학원 사이의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했다.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성민: “학교가 4시 정도에 끝나면 집에 좀 있을 때가 1시간, 쉬는 시간 1시간 있고, 6시 반까지 학원에 있다가 끝나서 또 이제 1시간 정도. (그 다음 학원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나까 집에 오면 (자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그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총 4시간? 5시간?”

연구자: “그때도 주로 유튜브 보니?”

성민: “그땐 그런 거 안 봐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 거 하면 게임하고 또 못 봤던 거 계속 봐요, 웹툰 그런 거 그 때 못 봤던 거 보고 아니면 오늘 드라마나 예능 그런 거.”

성민은 주말에는 하루에 약 12시간 정도, “깨어있는 내내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동안 밤 될 때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했다. 주말에는 “여유가 있으니” 주말 예능도 챙겨보고 게임도 오래 하고 목적 없이 유튜브를 브라우징하기도 한다고 했다. 바비(13)는 학교 후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저녁 9시까지 약 6시간동안 계속 TV 앞에 앉아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상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에서 친구들과 여가시간을 보낼 때에도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성민(14)은 “저는요 애들 만나면요 일단 밖에서 좀 놀다가 다른 애 집 가서 핸드폰 하면서 놀고 이래요. [...] 게임 뭐 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게 뭐 있는지 계속 찾다가 그 게임으로 애들이랑 같이 놀아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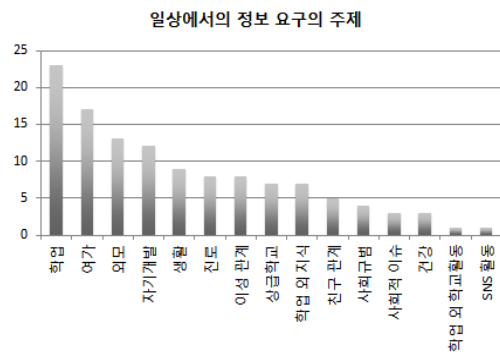
고 말했다. 민호, 준수, 희철 등 연구에 참가한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말했다. Van Cleemput (2010)는 비록 SNS와 다른 정보통신기술이 청소년들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의사소통 방법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Van Cleemput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정보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그들의 일상 정보 행태, 특히 미디어 사용을 통한 정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상의 문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주제는 학업, 여가, 외모, 자기개발, 생활, 진로 등이었으며, 특히 학업과 여가에 대한 정보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그림 1〉참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낸 학업에 대한 정보 요구 주제는 ‘공부하는 방법’이었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기초 학습 능력 부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실제로 학업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학교 수업 외의 시간을 모두 여가 시간으로 쓰고 있었으며, 이는 여가에 대한 높은 정보 요구

로 이어졌다. 이들이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은 게임, SNS, TV 등의 미디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외모에 대한 정보 요구는 13-14세 청소년에게서, 자기개발에 대한 정보 요구는 17세 이상의 청소년에게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태도로 해석된다. 생활, 학업 외 지식, 사회규범, 사회적 이슈 등에서 나타난 정보 요구의 주제 중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배경에 바탕을 둔 것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의 돌봄이 비교적 적어 스스로 자신과 동생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식사와 살림 등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상에서의 정보 요구의 주제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정보 요구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미디어는 심리적 도피처이자 안식처였고, 자기표현을 위한 도구였으며, 지식과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해답의 책이자 여가 시간의 동반자였다(〈그림 2〉참고). 이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인 SNS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서의 고충을 공유하고 자

유롭게 다양한 역할의 시도를 통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성적 정체성과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나갔다. 중도 입국으로 인하여 갑자기 낮은 환경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던 이는 동영상 제작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타인들과의 소통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넷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도구(Vallentine and Holloway 2002)라는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식 정보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의 키워드 검색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5시간 47분, 주말 평균 7시간 49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할애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의 지지와 관여, 통제가 적은 청소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오락형 인터넷 활용 방식(정익중 2010)의 태도를 보였다.



〈그림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요구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미디어 사용

5.2 제언

5.2.1 학업 정보 요구에 대한 지원

학업에 대한 정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11명 중 8명이 학원이나 과외 등 학교수업 외의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았다. 이들 중 성격이 활발한 2명은 학업, 자기개발, 상급학교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학교 교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했다. 학교 교사에게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 경우 공부방 교사, 군인 멘토링¹⁾ 교사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학생은 학업, 자기개발, 상급학교 등에 대한 정보 요구가 있을 때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정보 습득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질문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했다.

또래에 비해 3학년 정도 낮은 수준의 학업실력을 보인 다정은 학업에 대한 기초개념의 부족이 그 이유임을 알고 있었지만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가정 형편 역시 잘 알고 있었고 학업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교육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교육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녀 교육에 직

1) 군인 멘토링: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는 군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일부 학교에서 최근 군대와 협약을 맺어 방과 후에 군인 멘토링 교사가 학교에 찾아와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주는 '군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김유진, 오성배 2013). 이와 같은 정보 격차는 교육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소득 격차와 문화 격차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박진수 외 2015).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보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가 절실하다. Craig and McDowell(2013)은 도서관이 정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숙제 도우미, 무료 정보기술 강좌, 무료 인터넷 접속,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학교숙제 도우미 서비스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다. 이들 도서관은 도서관 대출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 한해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을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자로 초대하는 효과도 함께 누리고 있다. 김영미와 조인숙(2011)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25개구에 소속된 95개 공공도서관 중 10개관에서 이미 숙제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광양공공도서관(2016)과 진천군립도서관(2016) 등에서도 학기 중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숙제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시적의도서관(2012)에서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초등학생이 멘토-멘티 관계가 되어 방학숙제를 함께 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같이 학업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마땅히 질문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나 또래들과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자존심 때문에 정보 요구의 해결을 포기하는 이들에게는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또래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는 숙제 도우미와 멘토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숙제도우미 서비스 확대와 지속적인 서비스의 유지, 대학생/고등학생 멘토링 서비스와의 연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정보 요구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국 내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2.2 정보기기 이용 기회의 확대

박진수 외(2015)의 연구는 이미 한국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정보격차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715명(다문화가정 학생 386명과 비다문화가정 학생 3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정보화교육 경험, 정보마인드, 정보기기 이용능력 모두에서 비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컴퓨터 보유 유무, 집안에서의 인터넷 이용 가능성, 스마트 기기 보유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비다문화가정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청소년들이 정보기기의 부재로 인해 학교 숙제에 불편 혹은 어려움을

겪은 에피소드를 토로하였다. 준수(15)와 지애(17)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 발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집에 컴퓨터가 없어 스마트폰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고 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스마트폰으로도 파워포인트파일을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기본적인 슬라이드의 구성은 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 효과 등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집에서 컴퓨터로 만들어진 친구들과 비교가 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성민(14)은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친구네 집 컴퓨터를 이용하곤 하는데, 아직 숙제를 다 못했는데 친구가 학원을 가야 하거나 숙제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친구 어머니에게 혼이 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학교의 컴퓨터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성민은 “열쇠 담당 선생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허락을 받고 그 시간까지만 해야 돼서” 웬만하면 친구네 집에 가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경험을 미루어볼 때 정보기기에의 원활한 접근이 정보 격차 해소와 교육 수준 격차 해소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일부 대학도서관의 경우 소속 학생들에게 노트북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 있으나 이는 기기 구입 예산과 관리 시스템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한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정보기기를 이용한 정보 요구 해결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컴퓨터 이용 시간 확장으로 보인다. 이는 다문화가

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 사이의 정보 격차 해소뿐 아니라 정보기기에의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 학생 전반의 정보 요구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일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청소년의 학교 숙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안도 제안해본다.

5.2.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돌봄이 비교적 적고 학교수업 외에 학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미디어 사용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동영상 시청하며 음악을 들으면서 온라인채팅과 웹툰 읽기에 몰두했다. 자기 개발과 자기표현의 도구, 심리적 탈출구로써 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나래(13)는 SNS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의 친구를 만드는 행태를 보였다. 정보요구기록지를 제출할 당시 나래는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 두 달쯤 된 상태였는데, 면담 당시 자신은 페이스북 친구가 35명밖에 없다며 부끄러워했다. 연구자와 나란히 앉아 컴퓨터로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보여주던 나래는 한 여자중학생의 프로필을 클릭하며 “샘, 이 언니 이빠요? 이 언니가 친구가 2천명 있대요. 진짜 많죠?”라고 말했다. 그 언니가 부럽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래는 “다른 사람은 프로필(사진) 올리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

는데 내 건 달랑 3명밖에 안 눌러줘.”라고 말하며 프로필사진에 ‘좋아요’가 55개인 페이스북 지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Bonetti, Campbell and Gilmore(2010)는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SNS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래는 페이스북에서는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고, 면담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래의 페이스북 친구는 624명으로 늘어 있었다. 자기정보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친구 맺기는 SNS에 익숙하지 않은 십대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정보 행태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이다.

2000년대 초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모든 십대가 디지털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퍼졌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그 믿음은 착각이며 실제로 많은 십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 서툴다고 주장하고 있다(Boyd 2014).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즉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인식과 신념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 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에 풍성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같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미디어에 할애하는 경우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은 필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의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정보 이용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정보 이용 교육이 종종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는 도서관의 장서와 시설의 이용 안내에 그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이용, 개인정보 보호,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습득과 전달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서관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독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2016)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해독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이 도서관서비스의 필수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하였다(은평구 2016). 앞으로 보다 많은 도서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해독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tter(2014)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우리가 접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대중 미디어를 접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관점의 집합”이라 말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감정적, 미학적, 도덕적 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이용

교육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습득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정보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특한 정보 행태 양상을 살펴보고 특히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그들의 미디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정보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실무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정보 요구 주제와 미디어 사용 패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프로그램과 장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송영리(2012)가 전국의 다문화 거점 학교 중 사서 및 사서교사가 있는 초등학교 3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시행중인 다문화 서비스 중 빈도수 상 상위권에 위치한 서비스는 다문화 교육/이해를 위한 장서제공(1위),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개방(2위), 다문화 학생의 한국문화 이해를 지원하는 장서제공(3위),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함양에 필요한 장서제공(공동 3위) 등으로 주로 문화 이해에 대한 장서 제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함양에 필요한 장서제공 역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보인 학업에 대한 높은 정보 요구에 비추어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

라 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서도 기초학습능력 함양에 필요한 장서의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정보 요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보 요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이 도서관에 갖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들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역시도 잠재적인 도서관 이용자로 초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이주배경 청소년은 인종이나 부모/본인의 출신 국가 등에 따라 명명되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Asian American), 중국계 캐나다인(Chinese Canadian), 한국계 이민자(Korean immigrant)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 속에 개개인의 고유하고 다양한 이주배경이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 정책적 용어로 쓰기 시작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현재 선주민 한국인이 아닌 이들을 통칭할 때 흔히 사용되며,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 학생 이리 나오세요.", "오늘 수업 후 다문화 잠깐 남아 있어."와 같은 말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을 '다문화'로 귀결시키고 있다(중앙일보 2009). 이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주배경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를 "다문화가정의 딸"(임여주 2016)이라고 명명하거나 단지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승인이도 다문화고 저도 다문화잖아요."(지애, 17). 그러나 최근에는 '다문화' 뒤에 숨겨진 다양한 문화

적, 언어적, 국가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정의철 (2013)은 “‘다문화’라는 거대 담론 속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서

비스를 기획할 때 서비스 대상이 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 언어, 국가의 구성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2014. 『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2] 김영미, 조인숙.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03-124.
- [3] 김유진, 오성배. 2013.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열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1(3): 135-160.
- [4] 김지혜, 정익중. 2010. 빈곤은 인터넷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이 부모의 지도감독과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29-56.
- [5] 김현경.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체계(부모, 교사, 교우)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이버사회문화』, 2(2): 1-29.
- [6] [내 생각은...] “다문화 학생 남으세요” 상처 주는 말들. 2009. 『중앙일보』. 8월 22일. [online] [cited 2016. 4. 21.] <<http://news Joins.com/article/3738419>>
- [7] 『도서관법: 제2조 3항』 (개정 2016. 2. 3., 법률 13960). [online] [cited 2016. 8.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19&efYd=20160804#0000>>
- [8] ‘멤놀(멤버놀이)’에 빠진 청소년. 2011. 『주간동아』. 3월 28일. [online] [cited 2016. 6. 1.]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1783/1>>
- [9] 박경석 광양공공도서관장 “지혜의 빛을 밝히는 열린 도서관 만들고 싶다”. 2016. 『광양경제신문』. 7월 12일. [online] [cited 2016. 8. 6.] <<http://www.g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49>>
- [10] 박진수 외. 2015. 『소외계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방안 연구: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중심으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1] 박현모, 이지연. 2013. 도시와 농어촌 청소년의 일상 정보 행태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1): 71-92.
- [12] 서진희. 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비교』. 석사학위논문,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 [13] 설진아. 2010.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동기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상관성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4: 43-72.
- [14] “난 수지, 넌 현아” 연예인 놀이에 빠진 아이들. 2014. 『한국일보』. 2월 11일. [online] [cited 2016. 6. 1.]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njoy/201402/sp2014021113383494470.htm>>
- [15] 송영리. 2012. 『학교도서관 기능중심의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 [16] 신현옥 외.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여성가족위원회.
- [17] 안인자, 박미영. 2011.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79-301.
- [18]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서울: 여성가족부. [online] [cited 2016. 6. 15.]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2320>
- [19] 은평구. 2016. 『은평구립도서관, 어린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은평, 내일> 1기 시행』. [online] [cited 2016. 8. 7.] <<http://blog.daum.net/epblog/4177>>
- [20] 이미정, 이미정. 20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인천시 중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295-321.
- [21] 이상우, 배선영. 2011. 『미디어 다양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22] 이연옥. 2007.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해결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107-134.
- [23] 임여주. 2016. 다문화 어린이 문학에 대한 독자반응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1): 237-261.
- [24] 정의철. 2013.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25] 제천 기적의 도서관 ‘방학숙제 도우미’ 운영. 2012. 『아시아뉴스통신』. 7월 31일. [online] [cited 2016. 8. 6.] <<http://www.anssa.com/detail.php?number=377129&thread=09r02>>
- [26] 진천구립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3년 연속 선정. 2016. 『뉴스1』. 3월 11일. [online] [cited 2016. 8. 6.] <<http://news1.kr/articles/?2599182>>
- [27] Abbas, J. 2010. “Childre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3rd ed. New York: Taylor and Francis: 930-941.
- [28] Agosto, D. E. and Hughes-Hassell, S. 2006a. “Toward a Model of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 Needs of Urban Teenagers, Part 1: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10): 1394-1403.

- [29] Agosto, D. E. and Hughes-Hassell, S. 2006b. "Toward a Model of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 Needs of Urban Teenagers, Part 2: Empirical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11): 1418-1426.
- [30] Alvermann, D. 2008. "Why Bother Theorizing Adolescents' Online Literacies for Classroom Practice and Research?."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2(1): 8-19.
- [31] Bonetti, L., Campbell, M. A. and Gilmore, L. 2010. "The Relationship of Loneliness and Social Anxiety with Children's and Adolescents' Online Communica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 279-283.
- [32] Boyd, D. 2014.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33] Campbell, D. T. and Stanley, J. C. 1963.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Research on Teaching." In N. L. Gage.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Chicago: Rand McNally.
- [34] Christensen, P. H. 2004. Children's Participation in Ethnographic Research: Issues of power and representation. *Children & Society*, 18: 165-176.
- [35] Chu, C. M. 1999. "Immigrant Children Mediators (ICM): Bridging the Literacy Gap in Immigrant Communities." *New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5(1): 85-94.
- [36] Craig, A. and McDowell, C. L. 2013. *Serving At-Risk Teens: Proven Strategies and Programs for Bridging the Gap*. Chicago: Neal-Schuman.
- [37]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38] d'Haenens, L. 2003. "ICT in Multicultural Society. The Netherlands: A Context for Sound Multiform Media Policy?." *Gazette*, 65(4-5): 401-21.
- [39] Donath, J. S. 1999. "Identity and Deception in the Virtual Community." In Kollock, P. and Smith, M. A. *Communities in Cyberspace*. London: Routledge: 29-59.
- [40] Dresang, E. T. 1999. *Radical Change: Books for Youth in a Digital Age*. New York: H. W. Wilson.
- [41] Dresang, E. T. 2005.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Youth in the Digital Environment." *Library Trends*, 54(2): 178-196.
- [42] Elias, N. and Lemish, D. 2009. "Spinning the Web of Identity: The Roles of the Internet in the Lives of Immigrant Adolescents." *New Media & Society*, 11(4): 533-551.
- [43]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Co.

- [44] Fisher, K. et al. 2007. "Tweens and Everyday Life Information Behavior: Preliminary Findings from Seattle." In Chelton, M. K. and Cool, C. *You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I: Contexts, Theories, Models, and Issues*. Lanham, MD: Scarecrow Press: 1-25.
- [45] Fine, G. A. and Sandstrom, K. L. 1988. *Knowing Children: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Minor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ries, 15.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46] Glesne, C. 1999.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New York: Longman.
- [47] Graham, H. 1984. "Surveying through Stories." In Bell, C. and Roberts, H. *Social Researching: Politics, Problems, Practi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48] Gross, F. L. 1987. *Introducing Erik Erikson: An Invitation to His Thinking*.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49] Koh, K. 2011. *Propos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Digital Age Youth Information Behavior Building Upon Radical Change Theory*. Ph.D. diss., College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Graduate School of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US.
- [50] Koltay, T. 2011. "The Media and the Literacies: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digital literacy." *Media, Culture, & Society*, 33(2): 211-221.
- [51] Koo, J. H. 2012. "Recent South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when Isolated from Peers: A Pilot Study." *The Journal of Research on Libraries and Young Adults*, 2(3): 1. [online] [cited 2016. 4. 21.]
 <<http://www.yalsa.org/jrlya/2012/09/recent-south-korean-immigrant-adolescents-everyday-life-information-seeking-when-isolated-from-peers-a-pilot-study/>>
- [52] Holloway, S. and Valentine, G. 2002. *Cyberkids: Children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Routledge.
- [5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2009.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3rd ed. [online] [cited 2016. 6. 15.]
 <<http://www.ifla.org/files/assets/library-services-to-multicultural-populations/publications/multicultural-communities-en.pdf>>
- [54]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55] McKenzie, P. J. 2003. "A Model of Information Practices in Accounts of Everyday-Life Information-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59: 19-40.
- [56] Meyers, E. M., Fisher, K. E. and Marcoux, E. 2009. "Making Sense of an Information World: The Everyday-Life Information Behavior of Preteens." *The Library Quarterly*, 79(3): 301-341.
- [57] Mihailidis, P. 2014. "Tethered Generation: Exploring the Role of Mobile Phones in the Daily

- Life of Young People.” *Mobile Media & Communication*, 2(1): 58-72.
- [58] Moje, E. et al. 2008, “The Complex World of Adolescent Literacy: Myths, Motivations, and Myster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8(1): 107-154, 278-280.
- [59] Nielsen. 2012. *State of the Media: The Social Media Report 2012*. [online] [cited 2016. 6. 11.]
〈<http://www.nielsen.com/us/en/insights/reports/2012/state-of-the-media-the-social-media-report-2012.html>〉
- [60] *Oxford Dictionaries*. 20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v. “media.” [online] [cited 2016. 3. 14.]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media?q=media+>〉
- [61] Patton, M.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62] Potter, W. J. 2014. *Media Literacy*. 7th ed.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63] Roberts, H. 2008. “Listening to Children and Hearing them.” In Christensen, P. and James, A. *Research with Children: Perspectives and Practices*. 2nd ed. Oxon: Routledge: 260-275.
- [64] Rydin, I. and Sjöberg, U. 2008. “Narratives about the Internet as a Communicative Space for Identity Construction among Migrant Families.” In Rydin, I. and Sjöberg, U. *Mediated Crossroads: Identity, Youth Culture and Ethnicity: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Göteborg: Göteborg University: 193-214.
- [65] Saldana, J. 2009. *The Coding Manuals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Publications.
- [66]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 [67] Savolainen, R. 200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In Fisher, K., Erdelez, S. and McKechnie, E. *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r*. Medford, NJ: Information Today: 143-148.
- [68]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69] Suler, J. 2002. “Identity Management in Cyberspace.” *Journal of Applied Psychoanalytic Studies*, 4(4): 455-460.
- [70] Todd, R. and Edward, S. 2004. “Adolescents’ Information Seeking and Utilization in Relation to Drugs.” In Chelton, M. and Cool, C. *Youth Information-Seeking Behavior: Theories, Models, and Issues*. Lanham, MD: Scarecrow Press: 353-386.
- [71] Valkenburg, P. M., Schouten, A. P. and Peter, J. 2005. “Adolescents’ Identity Experiments on the Internet.” *New Media & Society*, 7(3): 383-402.
- [72] Van Cleemput, K. 2010. “‘I’ll See You on IM, Text, or Call You’: A Social Network Approach

of Adolescents' Use of Communication Media."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0: 75-85.

- [73] Webb, E. J. et al. 1996. *Unobtrusive Measures*. Chicago: Rand McNally.
- [74] Westcott, H. and Littleton, K. S. 2010. "Exploring Meaning in Interviews with Children." In Greene, S. and Hogan, D. *Researching Children's Experience*. London: SAGE: 141-157.
- [75] Zimmerman, D. H. and Wieder, D. L. 1977. "The Diary/Diary-Interview Method." *Urban Life*, 5: 479-49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Education. 2014. *5cha Gyoyukjeongbohwa Gibongyehoik*.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2] Kim, Young-Me and Cho, In-Sook. 2011.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and Multicultural Users on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for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03-124.
- [3] Kim, Yoo-Jin and Oh, Sung-Bae. 2013. "A Qualitative Study of Married Immigrant Mother's Enthusiasm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31(3): 135-160.
- [4] Kim, Ji-Hae and Chung, Ick-Joong. 2010. "The Effects of Poverty on Schoo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ediated by Parental Monitoring and Types of Internet Us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3): 29-56.
- [5] Kim, Hyun-Kyung. 2011. "A Study on the Pattern of Internet Usage among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System (Parents, Teachers, Friends)." *Journal of Cyber Society & Culture*, 2(2): 1-29.
- [6] "[I Think...] "Multicultural Students Should Stay" Words that Hurt". 2009. *Joongangilbo*. August 22nd. [online] [cited 2016. 4. 21.] <<http://news.joins.com/article/3738419>>
- [7] *Library Act: Clause 3 of Article 2* (Revised from 2016. 2. 3., Law No. 13960). [online] [cited 2016. 8.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19&efYd=20160804#0000>>
- [8] "Youth Who Are into 'Mem-Nol(Celebrity Role-Playing)'"'. 2011. *Weekly Donga*. March 28th. [online] [cited 2016. 6. 1.]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1783/1>>
- [9] "Park Gyung-Seok, Director of Gwangyang Public Library, "I Want to Make an Open Library Which Sheds Light of Wisdom.""'. 2016. *Gwnagyang Economic Daily*, July 12th. [online] [cited 2016. 8. 6.]

- 〈<http://www.g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49>〉
- [10] Park, Jin-Soo et al. 2015. *A Study on Education Informationalization Policy to Relieve Information Disparity among Marginalized Youth*. Daegu: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11] Park, Hyunmo and Lee, Jee Yeon. 2013. "A Comparison Study of the Everyday-Life Information Behaviors of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1-92.
 - [12] Seo, Jin Hee. 2012. *Comparison of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M.A.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13] Seol, Jin-Ah. 2010. "A Study on Korean Teenagers' Internet Usage and Motivation for Online Communication Activities." *Media, Gender & Culture*, 14: 43-72.
 - [14] "'I am Suzie, You're Hyuna' Children Who Are into Celebrity Role-Playing". 2014. *Hankookilbo*. February 11th. [online] [cited 2016. 6. 1.]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njoy/201402/sp2014021113383494470.htm>〉
 - [15] Song, Young-Ri. 2012. *An Analytical Study of Multicultural Service based on the Function of School Library*.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Korea.
 - [16] Shin, Hyun-Ok et al. 2012. *Report on the Status of Youth of Immigration Background*. Seoul: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 [17] Ahn, Inja and Park, Miyoung. 2011. "Public Library Multicultural Programs and Improvement Methods Analyzed from Case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279-301.
 - [1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2015nyun Jeongukdamunhwagajokshiltaejosa Juyo Gyeongwa*.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online] [cited 2016. 6. 15.]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2320〉
 - [19] Eunpyeong-gu. 2016. *Eunpyoung Library Starts the 1st Season of Children's Media Literacy Education <Eunpyung, Tomorrow>*. [online] [cited 2016. 8. 7.]
 〈<http://blog.daum.net/epblog/4177>〉
 - [20] Lee, MiJung and Lee, MiJung. 201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focus on the case of Incheon Junga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295-321.

- [21] Lee, Sang-Woo and Bae, Sun-Young. 2011. *Media Diversity*. Seoul: Communication Books.
- [22] Lee, Yeon-Ok. 2007. "School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for Satisfying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107-134.
- [23] Lim, Yeojo. 2016. "A Study of Readers' Responses on Children's Books about Multiculturalism: Focusing on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237-261.
- [24] Jeong, Eui-Chul. 2013. *Multicultural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25] "Jecheon Miracle Library 'Summer Break Homework Help'", 2012. *Asia News Agency*. July 31st. [online] [cited 2016. 8. 6.]
〈<http://www.aneusa.com/detail.php?number=377129&thread=09r02>〉
- [26] "Jincheon Library, Selected for 'Multicultural Service Program' for 3 Consecutive Years". 2016. *News1*. March 11th. [online] [cited 2016. 8. 6.] 〈<http://news1.kr/articles/?2599182>〉